



기초생활급여 압류 원천봉쇄

이달 '행복 지킴이 통장' 도입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급여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채무불이행자 등에 대해 제3자 명의의 통장을 급여계좌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추가적인 급여의 압류를 방지하고 있다. 제3자의 범위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압류금지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됐으나 통상적으로 사법 실무적으로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면 채무자인 수급자의 통장 전체에 대한 압류가 승인

돼 기초생활보장급여까지 압류돼 수급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수급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행복 지킴이 통장'이 실시된다.

'행복 지킴이 통장'은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개설되며, 희망자는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통장이 개설된 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통장이 개설되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에 한해 압류가 원천적으로 방지된다.

제주도는 행복 지킴이 통장 개설로 그 동안 개인적 부채로 기초생계에 위협을 받아오던 수급자들이 압류에 의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찾아가는 원어민 영어교실 호응

결혼이주여성 채용...화북지역아동센터 등 5곳 진행

"Are you ready?" 영어강사인 핀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질문에 2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한목소리로 "Okay!"라고 답했다.

제주시 화북지역아동센터 다목적실, 화북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금새 원어민 영어강사인 아벨로 조씨 보카(29)가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빠져들었다.

파워포인트와 플래시카드, 환동시트 등을 활용해 노래와 게임을 접목한 조씨의 수업에 학생들은 서툰지만 적극적으로 대답하며 영어를 배우고 있다. 조씨는 간단한 단어를 가르치면서도 아이들의 발음을 일일이 세심하게 바로잡아주는 등 꼼꼼히 수

업을 진행했다. 김수유(화북초 6) 어린이는 "딱딱한 책에 읽매이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놀며 영어를 배우고 있어 너무 재밌다"며 활짝 웃었다.

또 다른 어린이는 "단어를 계속 복습하면서 배우니까 쉽게 기억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원어민 영어교실'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화북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아동센터 3곳을 포함해 아라중합사회복지관 방과후 교실 등 모두 5곳을 주 1~2회 방

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영어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해 결혼이주여성에게 고급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매음의 기회를, 동시에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영어교실의 확대 운영이 어려운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대로 '찾아가는 원어민 영어교실' 대상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자활·생활안정기금 기준완화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기준이 완화된다. 이자율도 현행 2.5%에서 대폭 낮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폭 넓은 의견수렴과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용자대상을 현행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서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또 현행 2.5%인 이자율을

1%로 내려 저소득층의 용자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담보·무보증 용자제도를 보완, 기금 잠식을 방지해 건전성 유지를 도모할 예정이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시설 탐방·제주사립희망원
- 사회복지소식 4·5면
행복죽조리국·소식마당
존엄복지회 강은숙 회장 인터뷰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아동복지 세미나



철저한 위생 및 품질관리로 고객의 식탁까지 자연 그대로를 선사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고객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후원업체

이제 안전과 우수한 고품질의 축산물들은 (주)금강축산유통이 책임지겠습니다.



(주)금강축산유통
Keum Kang Livestock Distribution Co., Ltd

제주도 제주시 도두1동 2626-3번지
본사·공장 : (064)713-3010 FAX : (064)713-3100

道,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기 위한 일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최근 공중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3남매의 참혹한 생활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도와 행정시에 '일제조사 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국가·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각종 시설에 아동을 동반해 노숙하거나 투숙하는 경우, 무료·임시 보호시설을 이용한 경우,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 타 일제조사결과 확인이 안된 경우 등이다.

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나 지원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있는 ▲창고, 움막, 공원, 동굴 부근 거주자 ▲찢질방, 여관, 당구장, pc방 등에서 상당기간 거주하는 자 ▲유기·방임·학대받은 아동 및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도

15일까지 일제조사...극빈층 발굴·보호



△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5월 31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사대상이다.

제주도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되는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선정,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보호, 민간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행정기관의 직접 조사와 도민 신고에 의한 조사로 진행된다"며 "소외된 이웃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728-2981~5) 또는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760-2531~3),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5월 31일 도내 사회복지관련 직능단체 대표와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민간조직의 협조사항과 협조방법 등에 안내했다.

제주시 노인일자리사업 복지부장관 표창

제주시가 2010년도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가 수상한 가운데 제주시는 유일하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응모해 기관 표창을 받아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인 '초등학교 실버선생님'과 '금융기관 안내도우미'를 응모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초등학교 실버선생님' 사업은 노인들이 초등학교를 대

으로 체험위주의 인성 교육과 아동상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을 전달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몸소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2009년부터 제주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47개 초등학교에서 47명의 실버선생님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 안내도우미' 사업은 체험식 경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경제관을 확립하고 1·3세대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현재 40개 금융기관에 41명이 배치돼 있다.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기승

4월 80건 적발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압제운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4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주차차량 80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건에 비해 320%나 증가한 것이다.

4월까지 적발건수는 163건으로, 2009년 한해 적발건수(143건)를 벌써 넘어섰다. 지난해(342건)와 비교해도 절반 가까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시 본청과 읍·면·동 공무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공공기관, 유·무료주차장, 오일장, 대형할인마트, 병원 등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단속에 앞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으로 적발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기업 제과점 '돌코롬' 오픈

사회적기업의 제과점 '돌코롬'이 문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인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길직업재활센터(원장 양은섭)는 5월 19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돌코롬'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길직업재활센터는 2008년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작업능력이 있는 중증 재가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왔다.

돌코롬은 지난해 제주시가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면서 탄생했으며, 길직업재



활센터는 신규사업으로 제과를 선택했다. 돌코롬은 보리빵과 찹빵 등을 생산, 판매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3개 기업에 사업개발비 2억27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예비)사회적기업의 브랜드(로고)·기술개발,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엄마, 달아빠가 되어주세요

가정위탁의날기념프로그램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5월 20일 제주시 동문로터리 음악분수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엄마, 달아빠가 되어주세요'라는 주제로 가정위탁의 날 기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지역사회에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홍보물 배부, 거리상담실 운영, 페이스페인팅, 가족사진 촬영, 사랑의 메시지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자원봉사단체와 환경단체, 시민 등 2000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제주의 바다를 사랑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참가자들은 기념식을 마친 후 용담해안도로 일대에서 해안가 정화활동과 수중정화활동을 펼쳤다.

사회복지시설 텃밭 한 평 가꾸기' 시동

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의회(회장 임기옥)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원을 받아 사회복지시설 '텃밭 한 평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원예치료복지협의회는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인 사회복지시설 '텃밭 한 평 가꾸기 사업'을 5월 17일 시작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30여곳에 고추, 가지, 오이, 피망, 호박 등



텃밭에서 재배할 수 있는 모종을 배분했다.

각 사회복지시설에 조성된 텃밭은 사회복지시설과 협회 소속 원예치료사들이 협력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청정 제주바다만들기 자원봉사대행진 개최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존하기 위한 자원봉사대회가 열렸다.

제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고수언)는 5월 14일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일대에서 '청정 제주바다 만들기 자원봉사대행진'을 개최했다.



사회복지협의회 2011년 4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790,000	790,000
난치병환아후원	70,000	0
자원봉사후원	705,000	705,000
복지사업후원	1,135,000	1,103,970
푸드마켓후원	1,750,000	1,241,50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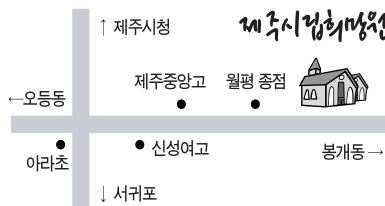
시설탐방

(43) 제주시립희망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요

5월 하순, 제주시 월평동에 위치한 부랑인복지시설 제주시립희망원(원장 박정해, 이하 희망원)을 찾았다. 건물 앞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와 고추는 따스한 봄 햇살아래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시설이용자들이 함께 작업해 심고 매일 물을 주며 사랑과 관심을 듬뿍 담아 정성껏 관리한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인지 부랑인과 노숙인이 주는 이미지와는 달리 처음 찾은 이곳에서 포근함과 따스함이 느껴졌다.



1972년 사랑의 집 운영을 시작으로 1979년 제주시립희망원이 설립됐다. 1987년부터는 제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도내에서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행려자들에게 일시보호 및 장기수용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상담·질병치료·자활교육 등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사회복지로 목적으로 한다. 이곳엔 현재 80여명의 부랑인과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희망원은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부랑인과 노숙자를 위해 생활지원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영양급식서비스, 프로그램서비스, 단계별 사회응기술훈련 및 재활훈련 등으로 시설이용자들의 정신적·신체적 능력 및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활의지가 있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 사회복지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 중 직업재활(취업) 및 사회복지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공동체인 '그루터기공동체'는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행동수정영역, 심리정서영역, 지적·영적영역, 직업생존영역 등 4대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부랑인과 노숙인들의 사회재활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한 가족이 되는 체계적인 구조 안에서 서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박정해 원장 "부랑인의 행복한 삶 위해 최선"

사회부적응 등 악물을 남용하게 만드는 행동과 생각, 감정의 부정적인 면들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부적응이나 악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방식을 갖게 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가정과 사회로 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김태규 사회복지사는 "참여자들이 강한 음주욕구로 단주생활을 이겨내지 못해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이런 실패경험 속에서도 끝까지 공동체를 통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재기하는 모습 속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회복' 중에 있는 부랑인 및 노숙인의 심리적인 '가정기반(home base)'을 통한 보다 넓은 사회 속으로의 재진입 프로젝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랑

인과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문화교육과 영상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긍정적인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박정해 원장은 "초기에는 운영비와 인력이 부족해 힘들었는데 현재는 조금씩 보완돼 부랑인과 노숙인을 위한 전문치료프로그램 '그루터기공동체'까지 실시하게 됐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부랑인과 노숙인이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사회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며 "다양한 서비스로 더 많은 이들이 사회복지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 및 자원봉사 문의 = 721-0711~2(담당 이정연). <양정선 명예기자>

함께 사는 제주' 장애인 고용 확대

2014년까지 5%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고용이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등 행정시와 산하기관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률을 2014년까지 5%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현재 제주도의 장애인 고용률은 3.99%로, 법정 의무 고용률(3%)을 웃돌고 있다.

제주도는 장애인의 사회 진출 기회를 넓히고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을 올해 4.13%(정원 4259명 중 176명), 2012년 4.27%(182명), 2013년 4.41%(188명)로 점차 높인 다음 2014년에는 5%(213명)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은 2009년부터 3% 이상으로 규정됐다.

민간부문은 50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올해 2.3%, 2013년 2.5%, 2014년 이후 2.7%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특수시책으로 2003년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난해까지 2696명에게 61억 45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575명에게 성별 및 장애등급별로 월 20만~50만원씩 모두 15억 53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와 행정시 뿐만 아니라 제주의 출자·출연한 기관에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도록 독려해 장애인들의 자립·지활 및 사회참여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은행' 시범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체인력은행을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도내 직장 여성들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장기(1년)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 직장 내부여건을 고려해 6개월 미만의 단기 휴직을 주로 이용해왔다.

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인력중개 기능의 미흡 등으로 실적이 부진했다.

제주도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복지마인드가 확립돼 있고, 육아휴직 희망자가 많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취업희망자를 모집해 7월부터 대체인력은행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사회복지분야 대체인력은행 운영으로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경우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일·가정 병행 직장문화 형성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체인력은행 가입자에게는 1년 단위의 안정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득안정과 경력개발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으로 대체인력은행 운영과 같은 틈새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육아휴직 급여수급자는 2007년 238명, 2008년 332명, 2009년 502명, 지난해 550명이다.

현수막·각종 실사출력사업 실시

해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2011년 신규사업으로 현수막 및 각종 실사출력사업을 실시한다.

5월에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장애인생산품인증, 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해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을 자립적 경제주체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고용기회를 제공하는데 사업목표를 두고 있으며, 현수막과 각종 실사출력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꿈드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시락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달해요

제주종합복지관 '행복국 조리국' 진행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이면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에는 행복과 사랑과 기쁨과 잔잔한 정을 나누는 사람들로 맛있는 음식냄새가 가득하다.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영양이 가득한 밀반찬을 지원하는 '행복국 조리국'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여울화단비' 봉사단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조리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옛말에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은 서로 어려울 때에 콩알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 먹으며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큰 힘이 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각박하게 돌아가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를 몸소 실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 아니다.

5년째 도시락 조리봉사활동

을 펼치고 있는 임영춘(60)씨는 "어떻게 생각하면 고생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아직 멀었어요"라며 자신의 봉사활동에 대해 씩스러워했다.

조리가 끝난 도시락이 복지관 1층으로 옮겨지면 우체국 직원들의 손놀림이 바쁘게 움직인다. 우편물만 배달하기에도 바쁠텐데 매주 화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저소득 아동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된다.

이처럼 '행복국 조리국'은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사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서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저소득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이 식은 세상에 사랑을 주기 위해 쉬지 않고 있다.

최근 많은 사회복지기관에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들을 위해 밀반찬 배달을 진행하고 있지만, '행복국 조리국'은 완전히 조리된 도시락이 아니라 반만 조리된 재료를 배달해 아동이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조리방법을 도시락에 동봉, 보다 손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 요리전문가를 초빙해 조리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요리경연대회를 열어 조리에 대한 흥미를 느끼도록 해주고 있다. 즉,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저소득 아동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조해 진행되는 '행복국 조리국'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계속된다.

〈김홍철 명예기자〉



손나래 "수화공연으로 봉사"

유진재활센터 주·단기보호시설(원장 최은미)은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교사료 '손나래' 수화 공연팀을 구성했다.

손나래 수화 공연팀은 4월 7일 제주시장애인 한마음 축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4월 27일 예능발표회 및 작품전시회에서 수화공연을 선보여 찬사를 받았다.

유진재활센터 주·단기보호시설은 "장애인 친구들이 수화를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됐다"며 "행사에 찬조출연이 필요한 시설이나 단체에서 연락을 주면 수화공연을 통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문의=747-1371.

양창근 팀장 복지부장관 표창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양창근 행정지원팀장이 제8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5월 20일 서울 롯데월드 예술극장에서 열린 2011년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양 팀장은 2003년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입사한 후 위탁부모 발굴, 교육 및 홍보사업, 상담사업, 정서지원사업, 지역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

효(孝)문화발굴공모전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5월 가정의 달과 6월 15일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을 맞아 현대사회 속에서의 다양한 효(孝)문화를 발굴하고,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효(孝)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효 또는 노인학대와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의 체험수기(수필)나 시를 오는 17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최우수작과 우수작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수여된다.

문의=757-3400,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jejunoin.org).

소/식/마/당

제11회 아가의집 문화축제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고용성)은 5월 22일 김성언 조천읍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후원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23주년을 기념하는 '제11회 아가의집 문화축제'를 열었다.

지적장애인들은 다양한 공연과 작품, 사진전시 등을 선보여 자신들의 재능과 끼를 맘껏 보여줬으며, 지역사회와 소통의 기회를 갖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부처님 오신날 기념 봉축법회



제주태고복지재단 미타요양원은 5월 10일 요양원 다목적실에서 생활어르신, 직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날 기념 봉축법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스님의 목탁소리에 맞춰 한 명씩 아기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욕불식에 참여했으며, 요양원을 한바퀴 순회하는 도량식까지 경건한 자세로 참여했다.

2011 제주케어하우스가족한마당



제주케어하우스(원장 김정현)는 5월 14일 입소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직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케어하우스 가족한마당'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가족과 함께 어우러지는 만남의 시간을 통한 입소 장애인 가족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자원봉사단체 '한아일'에서 간식을 제공했다.

초아적십자가족사랑봉사단과 봄나들이



사회복지법인 정혜원(이사장 이흥기)은 5월 14일 초아적십자가족사랑봉사단(단장 백두산)과 함께 88체육관 인근 궁도경기장에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초아적십자가족사랑봉사단은 정혜원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점심(출장뷔페)을 후원했다. 농협중앙회 광장지점(지점장 강문희)은 음료수 등 각종 다과를 제공했다.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효도잔치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5월 13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어르신 300여명을 모시고 제5회 '섬김과 나눔의 효도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카네이션 달아들이기, 건입동주민센터(동장 김창현)의 난타공연, 율곡·내친구어린이집의 재롱잔치, 마술, 민요공연 등이 진행돼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했다.

2011 구좌읍 다문화 한마음축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경희)은 구좌읍(읍장 부영방)과 함께 5월 21일 구좌읍주민자치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한데 어우러진 '2011 구좌읍 다문화 한마음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소통의 장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적은 양도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

존샘봉사회 강은숙 회장

“모아놓은 물품이 조금 있는데 가져가 주실 수 있겠어요?” 벌써 네 번째 물품 후원 연락이다.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바쁘게도 불구하고, 물품이 모여지면 어김없이 전화를 주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존샘봉사회 강은숙 회장. 이번에는 특별히 ‘비타민 공무원’으로 선정돼 받은 시상금까지 후원했다. ‘존샘’은 작지만 꾸준하며, 자상하고 섬세한 마음 씀씀이(정성)를 뜻하는 제주다.

존샘봉사회는 2007년 5월 23일 첫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4년째 꾸준히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 사이 회원은 27명에서 85명으로 늘어 제법 규모가 큰 봉사회로 발전했다.

매월 주말을 이용해 제주양로원, 아가의 집, 미타요양원 등을 정기적으로 찾아 목욕서비스를 비롯해 청소, 주방정비, 잡초제거, 운동화 빨기 등 노력봉사와 메주, 팔토시, 고추장 및 김장김치를 만들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한다. 또 독거 어르신들과의 개별 결연을 통한 방문서비스를 하는 등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제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강 회장은 봉사에 대해 “마음을 ‘함께 나눈다’는 생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만난다”며



△존샘봉사회 강은숙 회장이 ‘비타민 공무원’으로 선정돼 받은 시상금을 푸드마켓에 기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작은 정성으로 이웃들을 만나 마음으로 느끼는 무한한 행복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게 한다”고 말했다.

푸드마켓에 후원을 하게 된 동기를 묻자 “봉사활동을 다녀오다 푸드마켓을 보고 회원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물품모집에 동참하면서 푸드마켓과 인연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이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푸드마켓을 통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전달하는 것도 좋겠다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후원하게 됐다”고 했다.

또 “처음에는 ‘서너 개의 물품이 얼마나 보탬이 될까?’ 하며 조금은 낯설어 하던 회원들도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 푸드마켓에 물품을 전달하면서 ‘십시일반’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었다”며 ““많은 물품 혹은 큰 금액을 후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사라지고, ‘내가 가진 작은 것도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푸드마켓을 통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비타민’이라는 제목처럼 상큼한 기운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돼 힘이 되기를 바라며 시상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다적십자봉사회와나들이 가롤로의집

가롤로의집(원장 김금숙)은 5월 13일 삼다적십자봉사회(회장 김복희)와 나들이행사를 진행했다.

가롤로의집 식구들은 승마체험, 마상쇼 공연, 선녀와 나무꾼, 삼국지 공연 등 여러 관광지를 관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가한 한 장애인은 “오늘 너무 즐겁고요, 내년에 오늘 같은 나들이행사가 또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롤로의집 관계자는 “나들이를 통해 삼다적십자봉사회와 가롤로의집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끈끈한 인연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월드컵경기장서 아동권리증진캠페인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제89회 어린이날을 맞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HAPPY 아이사랑큰잔치’에 참여해 아동권리증진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리플렛을 비롯해 STOP & LOVE(STOP 아동학대 LOVE children)슬로건과 1577-1391 아동학대신고전화가 새겨진 풍선, 호신용 호루라기 등 홍보물품을 나눠줬고, 아동지킴이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특히 ‘STOP & LOVE 다프트’를 손수 만들어 아동들이 다트게임 참여를 통해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권리증진 홍보물품과 솜사탕 등 다양한 상품을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캐릭터 포토존’에서 포토타임을 가져 시민들과 아동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했다.

김운영 관장은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려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노인복지관, 컴퓨터 초급반 수료식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관장 휴완)은 5월 12일 복지관 강당에서 관계공무원과 어르신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컴퓨터교육 초급반 제1기 수료식을 가졌다.

제주도노인복지관은 펜티엄 5500급 PC 20대와 완전평면 22인치 모니터 20대를 확보해 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기초반 4개반을 편성,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해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한 60명이 이날 수료증을 받았다.

특히 고령의 나이에도 성실하고 열정을 다해 배움에 노소가 없음을 몸소 보여준 임흥숙(84) 어르신이 모범상을 받았다.

또 김용호(69) 어르신은 소감발표를 통해 “컴퓨터교육 등



록을 마친 날이 마치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처럼 가슴이 설레고, 내 닉네임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고 했다.

휴완 관장은 “KT IT 서포터즈에서 다문화가정 강사가 파견돼 교육이 이뤄진 것은 전국 최초”라며 “기초과정을 수료한 어르신 중 34명은 중급과정으로 올라가 계속 컴퓨터를 배우게 되는데 더욱 보람있고 행복한 즐거운 노후생활이 되길 바라며 지금의 열정과 에너지를 쭉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자격제도 개선 세미나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한형범)는 5월 19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사회복지사자격제도, 이제는 개선하자’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사와 예비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들이 제시돼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학계, 예비사회복지사 간에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한형범 회장은 “이번 사



회복지사자격제도 개선 전국 릴레이 세미나를 계기로 보다 현실적인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세미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하고 16개 시도사회복지사협회와 주 관해 4개의 권역별로 총 4차례에 걸쳐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주보육원 황의두 국장대통령 표창



제주보육원 황의두 사무국장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89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황 사무국장은 1976년 7월부터 제주보육원에 근무하면서 아동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 자립을 위해 한결같은 노력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5월 식품 기탁자

▲(주)금강축산유통=육류 264kg	▲서문식품=두부 336모, 콩나물 60봉
▲김치원=김치 45kg	▲푸른축산물판매장=돈육 10kg
▲유진상사=식재료 989개	▲아산재단=쌀 200kg
▲존샘봉사회=생필품류 146개	▲(사)분다클럽 한라회=쌀 100kg, 라면 14박스
▲김우남 국회의원=쌀 800kg	▲고용범=김 2상자
▲CMS후원자=202명	175만원

도보건복지여성국,태고원서 봉사활동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국장 오정숙) 직원들은 5월 14일 제주태고원을 방문해 실내·외 환경정비와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칼럼

어느 95세 어르신과 Peter 선생님



김 범 훈

前제주일보 논설실장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다짐과 제안을 하신 두 어른을 소개할까 한다. 한 분은 전혀 모르는 분이고, 다른 한 분은 자주 만나고 있는 분이

다. 지난 3월 신문사를 정년퇴임한 후 1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문화를 사랑하는 선·후배 지인들이 작은 음악회를 결쳐 마련한 퇴임 위로연은 나의 삶에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현역 은퇴 뒤 새로운 미래 실현

그 날 한 후배가 낭독한 시 역시 가슴을 정하게 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다. /.../ 그 덕에 65세에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긴 시간이다. /.../ 그 때 나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다. /.../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공부를 시작하려 한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이다.〉(‘어느 95세 어르신의 수기’에서)

‘인생 3모작’이란 말이 있다. 1모작은 많은 것을 배우고 읽히며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청년단계다. 2모작은 각자의 일터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며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현역단계다. 3모작은 현역 은퇴 뒤 새로운 미래를 실현코자 하는 건강한 유종의 단계다. 인생 3모작은 적극적인 인생설계를 주문함이다. 결국 ‘어느 95세 어르신의 수기’는 이런 인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그래서인가, 나는 지난 3월부터 영어회화를 기초부터 공부하

기 시작했다. 이런저런 핑계를 들며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게 무척 후회스럽다. 왜냐하면 회화 공부 하루하루가 새롭고 재미있기 때문이다.

인생 3모작 준비에 소홀함없어야

그이면에는 미국인 Peter 선생님이 있다. 그는 2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도민 수강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강의를 한다. 나이 65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열정적이다.

지난 1996년 한국에 첫 발을 들여놓을 때, 서울도 부산도 어떤 큰 도시도 싫다며 오로지 제주 섬을 선택했다고 한다. 지난 5월 28일로 제주행 15주년을 맞아 “This is my home now” 라며 행복해 한다.

그는 최근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Clean-up Campaign(대청소 캠페인)’을 제안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자문케 한다.

어느 95세 어르신과 Peter 선생님은 꿈과 희망과 기본을 새삼 깨닫게 하고 있다.

시론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제정신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1970년대 초반에 심리학자 데이비드 로젠한은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질환자와 정상인들을 얼마나 잘 구별하는지 실험해보기로 했다. 로젠한은 피실험자들을 모집하여 정신질환자처럼 가



고 수 희

평안전문요양원부원장

장시킨 후 여러 곳의 정신병원에 나누어 들여보냈다. 이른바 ‘제정신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로젠한 자신을 포함한 여덟 명의 피실험자들은 모두 제정신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데 성공하였고, 로젠한의 실험은 정신의학계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로젠한은 이에 멈추지 않고 앞의 실험과 반대되는 실험으로 정신의학계를 다시한번 조롱한다. 두 번째 실험을 위해서 그는 3개월 안에 가짜 환자들을 보내겠다고 정신병원 의사들에게 통보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그가 정신병원으로 보낸 사람들은 193명의 진짜 환자들이었다. 하지만 이 진짜 환자들 중 10%는 정신과 의사들로부터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추방당했다.

가족·사회안전은 우리에게 달려

정상과 비정상은 한 글자 차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로젠한의 실험에서 보았듯이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전문가들조차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다.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다 화김에 시어머니를 살해한 며느리와,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철순부모를 살해한 아들과, 베트남에서 시집온 14세 연하의 아내를 흥기로 찢어 살해한 남편과, 노모 부양 갈등으로 울케를 살해한 시누이와, 내연녀와 공모하여 아내를 살해한 대학교수는 제정신이었을까? 육하는 마음에서 화김에 일어난 일이든 오랫동안 누군가와 공모하여 벌인 일이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소통의 부재 속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악성댓글을 통해 집단적인 언어폭력을 휘둘러 누군가를 자살에 이르게 한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해당 피의자들은 모두 평범하게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의 이웃이며, 앞에 열거한 사건들은 모두 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벌어진 일이다.

불과 얼마 전 일본열도를 강타한 지진해일을 보며 어마어마한 자연재해의 힘에 경악했지만, 실상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 그것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이다. 오히려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덜 위험하다. 문제를 예측하여 예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경우라면 답이 없다.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푸르른 5월도 어느덧 지나고 6월의 녹음이 짙어지면 머잖아 뜨거운 여름이 들이닥칠 것이다. 올 여름도 육하는 성질 주저앉히고 화김의 생각들을 펼쳐 내면서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나와 내 가족, 이 사회의 안전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휴먼 서비스 종사자인 우리들부터 제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할 일이다.

기고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



양 시 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 소년과 생활보장담당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톨스토이 작)의 주인공 미하일은 세몬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미하일에게 이 세상의 존재 이유와 삶의 가치를 찾아 준 세몬은 가난한 구두수선공으로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활벗고 굿주린 미하일을 끌어안게 한다.

세몬이 간직했던 이러한 사랑과 배려의 심성은 어떤 사람이 간직하고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신은 남녀노소,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이러한 축복을 선물해줬고, 신기하게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은 나눌수록 그 가치가 빛난다는 사실이다.

우리 도는 따뜻하고 촘촘한 제

주 공동체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끔씩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할 때마다 답답한 기분이 들곤 한다.

다른 사람이 겪고 지나간 자리에서도 고사리가 발견되듯이 공무원 인력만으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데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 특히 움막, 창고,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거나 숙박시설, 찜질방, PC방 등에서 장기 투숙하는 사람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에 어려움이 많아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도에서는 6월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행정기관의 직접조사와 도민·단체들의 신고에 의한 조사를 병행하여 이번 기회에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최대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어 건강한 삶을 보장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토록 도와주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지만 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지만 우리 주변에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다. 만약 이들이 우리의 관심과 배려의 부족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제주’라는 한 울타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활벗고 굿주린 미하일을 향한 세몬의 사랑과 배려의 심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이다.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눈길과 관심, 그리고 이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배려의 마음이 우리 제주사회에 가득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도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도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일제조사가 마무리되는 6월 중순이 되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허덕이는 내 이웃이 없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숨은 일꾼과 아름다운 이야기 등을 알려주시면 적극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제6회 아동복지세미나

“아동인권 지향하는 아동인지적 관점 견지”

제주아이사랑협의회(회장 정원철)는 제주도에 아동인권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나아가 도내 아동복지기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5월 20일 제주 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아동인권 시각으로 보는 아동복지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주제로 제6회 아동복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지는 세미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제주아이사랑협의회는 5월 20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아동인권 시각으로 보는 아동복지 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주제로 제6회 아동복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유정은 센터장은 “사회복지 실천영역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 업무는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서로를 알아가기

또 “아동은 자신의 욕구에 기반한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비교하면 정치적 참여를

유아 및 아동·청소년이 도와 주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 “아동의 권리, 아동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일회성 교육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지속적인 교육과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다.

제주사랑아이협의회의 향후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유 소장은 “개별 기관 내에서 정체성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 간 논의도 중요하며, 논의의 중심에는 아동인권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점검이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유 소장은 “동일 대상 복지서비스 수행에 있어 화합할 수 있는 논의구조 여부와 기관장을 제외한 실무자의 협력이 가능한 신뢰감이 형성되어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관장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리더끼리는 협력 가능할 수 있으나 실무자들의 업무까지 협조체계가 이뤄지려면 협력하는 기관 간 구조적 문제(해당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수행까지 업무책임을 실무자가 전담처리 할 수 있는지, 기획회의나 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지 등)를 해결해야 하는 점이 선결돼야 하기 때

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소장은 또 “아동을 보는 시각변화와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기관 이외의 다른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동일대상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또는 활용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성인들이 아동인권을 지향하는 아동인지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담당 공무원의 변화는 매

해체 현상, 다문화가정의 확산 등은 아동을 위해 국가개입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또 “아동복지기관은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하게 정립한 뒤 기관은 자신들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시설장과 종사자들은 아동인권의 시각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자문하며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의식 전국지역아동센터협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유정은 센터장발제

아동이 주인 아닌 서비스 종종 발생 지적

서비스 수혜자로만 바라보는 시각 변화돼야

위한 충분한 노력과 합의 없이 진행되거나 아동이 주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대상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엇비슷한 사업을 이름만 다르게 진행하거나 아동을 위한 행사임에도 동원되는 느낌으로 참석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일 등을 예로 들었다.

유 소장은 “아동들이 자존감 떨어지는 활동에도 참여해야 하는 이벤트성 행사의 문제점들이 문제로는 인식되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각 아동복지 기관의 리더가 어떤 역할로 기관 정체성을 운영철학에 반영하고 있으며, 종사하는 개개인이 자신이 속한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이 녹아있는 운영철학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실천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성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과는 구별되도록 아동의 입장에서 더 많이 고려하고, 사업을 제안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유 소장은 아동복지기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아동을 보는 시각이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소장은 “아동발달 이해와 발달과업 수행에 대한 관찰,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적 치유의 과정은 모두 연계되어 있으며, 치유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을 서비스의 수혜자로만 바라보는 관점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영아를 한가 쪽으로 받아들이 돌보는 입양 부모의 기쁨은 영아가 가정에게 주는 도움이기 때문에 영·

빈곤·문제가정 아동에 적극적 개입 필요

아동자치회 활성화 통한 참여권 행사 보장

우 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아동복지정책수행이 뒷받침되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과제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황석규 제주평화센터 운영위원은 아동복지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황 위원은 “가족 중심으로 아동을 보면 모든 아동의 문제는 아동 그 가족의 문제이고, 개인의 문제로 규정된다. 이제 국가는 국가의 아동으로 전환하여 우선 시급한 빈곤과 문제 가정의 아동에 대한 적극적 혹은 지지적 개입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자본주의 발전, 가정

의회 제주지부장은 “아동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해주는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며 “아동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인권 시각으로 시설운영과 아동서비스를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아동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와 의사결정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의 계획과 진행, 평가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아동에게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인권 시각으로 참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www.webhard.co.kr id/pw : bananaj

Banana Ad

바나나애드

- ● Design 디자인
- ● Interior 인테리어
- ● Digital Printing 실사출력, 인쇄
- ● Sign 싸인
- ● Outdoor Advertising 옥외광고

본사 : 제주시 이도2동 1058-12 한화빌딩3층 공장 : 제주시 화북1동 1272-1

 064.753.7482~4  064.753.7487